

용담댐 하류 환경피해 해결 '첫발'

무주군, 대책 마련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서 대책 요청

무주군이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를 해결해 나가는 최종 조정을 이끌어 주민들의 고통 해결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무주군과 용담댐 하류지역 주민들은 18일 한국자원공사 용담댐지사 상황실에서 가진 용담댐 하류지역 환경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정회의에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책을 요청했다.

현장조정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해 김은경 전북지방환경청장, 한국수자원공사 윤재찬 금강유역본부장, 순경복 금강유역환경청 하천국장, 황인홍 군수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정회의를 통해 전북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환경청, 무주군청과 민원 신청인 대표 등

이 참여하는 민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용담댐 하류지역 주민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용역에 대해서도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자문위원 추천 등으로 민원해결에 앞장 설 계획이다.

이외에도 용담댐 하류 생태계 변화 등에 대한 환경조사 등 용역을 추진하고 환경관련 관계기관은 금강하천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용담댐 하류 퇴적도 제거사업 등을 시행하고, 하천유지용량 증대방안 등을 검토한다.

앞서 2021년 12월에 부남변발전협의회 김윤섭 회장 등 주민 1만3천여 명이 2001년 용담댐 준공이후 부유물질(진흙, 펄 등)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녹조와 악취 등 환경피해가 있어 수생

태계 복원과 오염원 저감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고통 민원을 3개월의 서명운동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관계기관이 같은 조정·합의가 성립됐음을 서명하면서 용담댐 하천의 수생태계 환경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용담댐 침식수 방류로 인한 탁류와 수온변화로 하천에 퇴적물이 침전되어 하천 환경이 악화되고, 생태계 변화에 따른 하천 기능성이 저하되어 피해가 누적됐지만, 군민들의 의지를 담은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정부와 조정·합의도 된 만큼 군민의 삶의 질 회복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민규 진안군의회 및 군의원, 관계 공무원 10여명은 18일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시에 위치한 설탕단풍나무 군락지 및 재배지 현장을 방문했다.

경관조림용 수종 도입 위한 선진지 견학

진안군, 설탕단풍나무 군락지·재배지 현장 방문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민규 진안군의회 및 군의원, 관계 공무원 10여명은 18일 경기도 양평군과 여주시에 위치한 설탕단풍나무 군락지 및 재배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설탕단풍나무라는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종류의 나무 재배 현황을 확인하고,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했다.

참가자들은 설탕단풍나무가 지금까지 설탕단풍나무를 재배 연구하며 얻은 결과물의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탕단풍나무는 북이 캐나다가 원산지로 일반 단풍나무와 달리 성장속도가 빠른 초고속 성장수로 성목 높이가

12m에서 40m까지 자라고 수명도 300년 이상 사는 수종이다. 또한, 설탕단풍나무에서 얻어지는 수액의 당도는 일반 단풍나무와 고로쇠 수액보다 당도가 월등히 높아 메이플시럽을 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수종이기도 하다.

군은 추후 견학결과를 토대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역특화조림사업 반영 여부 등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마이산 및 도로변 가시권 등 주요 임야 경관 개선 뿐만 아니라 수액 채취를 통한 임업인의 소득 증진을 위해서라도 진안만의 특색있는 경관 수림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탄력'

최훈식 군수, 전북도 관련 부서 방문·지속 건의로 예산 확보

장수군이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도비 2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40억원을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 장계면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에 신축돼 노후화된 건축물이며 안전진단 결과 안전이 취약한

시설물로 지하층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기 시 침수와 누수에 발생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해 신축의 시급성이 제기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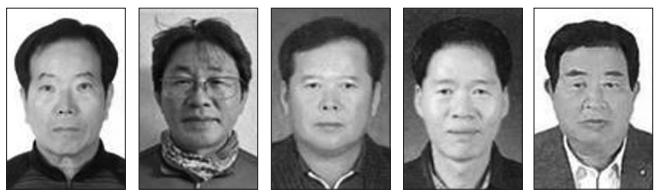
최훈식 군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 관련 부서를 방문하고 수차례

건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뤘다.

예산확보를 통해 장계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총사업비 40억원(도비 20, 군비 20)을 투입해 지상 3층 규모(1,200㎡)로 2023년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 농업인 대상 수상자 5명 선정



백형준 정진격 윤여권 양만용 박순도

장수군은 '제27회 농업인의 날 기념 제14회 장수군 농업인 대상' 수상 대상으로 △과수 부문 백형준(장수읍, 67)씨 △축산·임업 부문 정진격(계북면, 49)씨 △채소·특작·화훼 부문 윤여권(천천면, 68)씨, △식량작물 부문 양만용(장계면, 59)씨 △수출·가공 부문 박순도(계남면, 78)씨를 선정했다.

과수 부문 수상자인 백형준씨는 장수 사과영농조합 이사 및 한국사과협회 장수군지회장 등 사과 관련 활동을 통해

사과 농가들과 소통하고, 장수군 재배 환경에 맞는 농사법을 터득해 고품질 사과 생산자로 자리매김하는 등 사과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또한 축산·임업 부문 수상자인 정진격씨는 한우 축산농가로, 전국한우협회 사업부실장 및 장수군 젊은 한우 농가들과 축산정보 등을 교류하였고, 경영안정 및 한우품질 고급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장수군 한우발전 및 한우 사육농가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채소·특작·화훼 부문 수상자인 윤여권씨는 1975년부터 농업을 시작해 고추 Y자 및 오이 지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군의 원예경쟁품목 사업으로 채택 및 농가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 이바지 한 공을 인정받았다.

식량작물 부문 수상자인 양만용씨는 1986년 농업을 시작하면서 소득향상을 위해 벼 우수품종 보급에 앞장섰으며, 영농의 규모화를 위해 노력, 현재는 6ha면적의 논 농업을 경영하는 등 장수군의 안정적인 식량 작물 생산기반 확보와 농업소득 창출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마지막으로 수출·가공 부문 수상자인 박순도씨는 청정장수오미자조합 대표로 조직화에 기여, 2022년 추석 선물 대동령실 납품, 메가커피 및 각종 인 터넷판매, 매출액 증대를 위해 판로 개척을 선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취약계층 전기·가스·보일러 시설 긴급점검

무주군은 오는 11월까지 관내 저소득 재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절기 대비 전기, 가스, 보일러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동절기 안전점검 요령 유인물 제작·배포 및 관내 8개 전광판 활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 취약계층에 대한 취약계층 전기, 가스, 보일러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동절기 안전점검 요령 유인물 제작·배포 및 관내 8개 전광판 활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절기 난방기구 사용빈도가 증가할 것에 대비한 것으로 관련 시설과 기구에 대한 이상 유무를 미리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한다.

대상은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 총 1,964세대(저소득 재난 취약계층)로 독거노인 가정(1,407세대)을 우선 방문한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전기, 가스, 보일러 전문가(분야별 자격증 소지자 및 관련 분야 3년 이상 유경험자)와 읍면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생활지원사,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지난 18일부터 본격 점검에 들어갔다.

점검결과 소모품 교체나 간단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할 예정으로, 17일에는 무

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점검요원(전기, 가스, 보일러 전문가)을 위촉하고 시설 점검과 수리,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또 동절기 갑작스런 보일러 고장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19일에는 전 세대 가정용 보일러 일제 시험가동의 날도 운영(14:00~15:00)한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은 1마을 1담당공무원 일제 출장과 마을방송, 현수막, 전광판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홍보했으며 이와 함께 주민들이 상시 읽어보며 실천할 수 있도록 가스레인지 안전수칙, 가스보일러 안전점검, 전기사용 안전수칙, 전기장판 사용 안전수칙 등을 담은 유인물을 제작해·배포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차별화된 담레품 선정 본격 착수

진안군은 18일 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 고향사랑 기부제의 담레품 선정 논의를 위한 담레품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2명과 위촉직 위원 5명, 총 7명으로 구성됐으며 진안군 의회 김명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회의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설립, 진안군 담레품 목록 및 담레품 선호도 조사 결과 보고 후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면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담레품 선정을 위한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담레품 목록은 지난 9월 진안군이 관내 지역특산물, 관광서비스 등을 조사한 것으로 홍삼, 돼지고기, 곡류, 수삼, 김치, 홍삼스파이얼권, 진안고원물 온라인 상품권 등 30여개 품목이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된 담레품 선호도 조사 결과, 돼지고기 세트(15.8%), 홍삼류(15.5%), 곡류(쌀, 잡곡) 13.2%, 수삼(인삼) 12%, 진안고원물 온라인 상품권(10.6%) 순으로 나온 선호도 조사 결과를 참고해 향후 담레품 선정의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살고 싶은 진안 UCC 경진대회' 개최

진안군과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는 17일~28일까지 '살고 싶은 진안 UCC 경진대회' (이하 UCC 경진대회)를 공모전을 열고 있다.

UCC 경진대회 주제는 자연이 좋아서 진안으로 온 '사람', 귀농·귀촌하기 좋은 진안의 '마을', 나만 알기 아까운 진안의 '여행지' 등 귀농·귀촌하여 살고 싶은 진안군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은 유튜브용 영상이다.

시상금은 대상 1팀 100만원, 입선 5팀 각20만원이며 수상작은 진안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에서 진안군 귀농·귀촌을 위해 활용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